

2010.03.03 미래정책연구실

## □ OECD 농업각료회의의 주요 내용

### 1) 회의 주요 내용

- 2010.2.25~26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"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식품정책"을 주제로 2010 OECD 농업각료회의가 개최되었음.
  - 오스트리아 Nikolaus Berlakovich 장관과 뉴질랜드 David Carter 장관의 공동사회로 진행
  - 1일차(2.25) 회의는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과 공동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"급변하는 상황에서 농식품 시스템의 도전과 과제"에 대해 각국 농업각료들이 발표함.
  - 2일차(2.26) 회의는 "세계 농식품 시스템의 기회와 도전에 대한 국가와 OECD의 역할"에 관한 5개 세부그룹별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됨.
- 식량안보, 무역, 기후변화 등이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의 합치가 있었으며, 세계 농식품 시스템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.
  - 각료들은 식량 불안(food insecurity)에 대한 해결책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합치하였으며 생산성 제고, 개도국에서의 인프라, 교육훈련, 시장발전 등을 위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였음.
  - 각료들은 식량이 많이 생산되는 곳에서 그렇지 못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무역이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며, 규칙에 기반하는 다자 무역시스템이 그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 동의하였음.
  - 각료들은 기후변화가 식량 공급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였으며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였음.
- 금번 2010 OECD 농업 각료회의에서는 전세계 인구에게 안전하고

영양 있는 식품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인식하에 식량안보, 기후변화, 녹색성장 등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『농식품분야의 정책원칙(Policy Principal for Food and Agriculture)』과 『OECD 활동의 지침(Ministerial Guidance to OECD)』으로 구성된 각료선언문(COMMUNIQUE)을 채택하였음.

- 각료선언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5년 이전에 OECD 각료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함.

### 2) 시사점

- 금번 각료회의는 1998년 합의된 정책원칙을 식량안보, 기후변화적응, 녹색성장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맞게 보완하여 국가와 OECD가 공동으로 농식품의 정책방향 모색하고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.
- 새로이 작성된 각료선언문은 향후 OECD의 정책분석 활동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, 각료선언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농업분야 OECD 활동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